

소재기술 수출 50% 이상 증가

과학기술부, 국내 기술무역 활발 ... 수입액 증가율이 수출액 상회

2008년 기술 수출액이 전년대비 16.1% 증가한 25억3000만달러로 나타났다.

교육과학기술부가 기술 수출 1954개사 및 기술 도입 249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2008년 기술무역 규모는 특허, 상표·실용신안·디자인, 기술정보, 기술서비스 등에서 총 82억달러로 집계됐다.

수출액은 16.1% 증가한 25억3000만달러, 수입액은 11.1% 늘어난 56억7000만 달러로 조사돼 기술무역 수지는 31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.

산업별 기술무역 현황을 보면 전기·전자 및 기계 산업의 기술 수출과 수입규모가 크게 나타나 반도체, 무선 통신기기,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분야에서 기술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.

기술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소재산업으로 증가율이 54.9%에 달했다.

기술무역이 가장 활발한 전기·전자 및 기계, 정보통신산업도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. 해외기술 수입 증가는 소재산업(61.2%), 농림수산업(44.2%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

기술무역 통계조사는 2001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.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1/19>